

# 미국의 민중이 전세계의민중에게 보내는 호소문

이 글에 서명하시려면, 귀하의 성명과 함께, 소속단체가 있으시면, 그 단체의 이름을 [openletter@iccr.org](mailto:openletter@iccr.org)로 보내주십시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다. 이미 요란해진 전쟁의 북소리는 현대 미디어의 확성기를 통해 매일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선제 공격” 전쟁이라는 독트린을 채택했다. 미국 민중들의 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와, 정의, 경제적 평등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 같이 일하기 위해, 전세계 민중에게 손을 뻗는다.

미국 정부는, 안타깝게도, 전지구적 악당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역할에 우리는 매우 경악한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무 오래 시달린 아이들에게 전쟁과 파괴의 위협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동은 이미 상승한 분노의 열정을 더욱 가중시켜 미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테러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다. 우리는 또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 기구들이 강화되기를 원한다. 미국은, 스스로의 최상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무력의 일방적 사용을 협박하며 다른 나라와 UN이 자신의 의도에 굴복하도록 밀어부치며, 법의 지배를 잠식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내의 시민의 자유가 침식당하는 속도와 깊이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 시민과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유구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노소(老少)의 구분없이 수 만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항의했다. 이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런 시위에 참가한 적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지방정부들은 이민자와 시민들을 체포 감시하는 비헌법적 연방정부의 조치에 불응하는 법률을 발효시켰다.

우리는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거대한 원유 소비는 기후 변화의 위험과 전쟁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의무에 저항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에 관련해 우리를 고무시킬 규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을 거대한 원유 소비라는 가장 위험한 중독에서 미국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 엄밀히 말해, 대량살상 무기는 완강하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이다. 우리는 미국 스스로는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거부하고, 핵무기의 존속을 포기하는 조약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계가 미국의 요란한 이라크 전쟁의 요구를 위선이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은, 9-11를 포함하여 한 차례 이상,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는 그의 폭력적 야망을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용했다.

이러한 끔찍하고,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선하고 훌륭한 전문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계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디아, 그리고 파키스탄 등 8개의 핵무기 소유국가 있고, 두 개의 나라, 북한과 이라크가 비확산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강대국의 부당한 대량 살상 무기소유가 북한이나 이라크의 이러한 무기소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정부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의 생명과 어떠한 국적의 어린이의 생명과 맞겨림으로써 대량살상 무기의 사용을 자국민에게 정당화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용 물질을 압수해, 검증가능한 국제적 통제 하에 놓아야 한다. 생화학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강력한 제도와 전세계 어느 곳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강화할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UN의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의 전권적 특권을 고집하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고, 미국이 군축과 무관한 저의를 갖고 있을 수 있음이 또 다른 이유이다. 보다 나은 경로는 핵무기와 핵무기급 재료들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는 권위와 기술 능력의 부여를 통해 UN에 기반한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접근법은 여타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 무기와 9-11과 같은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유지나 군축을 주도하는 그 어떤 나라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와 국제 형사재판소의 사법권에 종속해야 한다. 초강대국의 일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어떤 나라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몇몇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다. 뉴른버그 나치 전범 재판에서, 미국의 재판관들은 승자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를 증언할 것을,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국적과 무관하게 공평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세계에 약속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사법권에서 벗어나고, 국제 형사재판소에 저항하고, 잠식하면서, 미국은 이 약속을 저버렸다. 미국은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사려없고, 근시안적인 미 정부의 군사에너지 정책이 국경 너머의 사는 인간들과의 제휴를 깨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를 포위하고, 우리 모두를 압도하려는 끔찍한 폭력에 맞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비폭력적으로 열심히 투쟁하는 전세계 민중과 연대를 천명한다.

우리는 21세기에는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원칙이 증오와 탐욕그리고 폭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가 인디아의 독립 투쟁을 지도하고, 인디아가 세계에 공헌할 일이 많다고 믿었을 때조차 간디는 “나의 애국심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나의 애국심은 포용적이며, 다른 국가성원의 비난과 착취를 증가시키려는 애국심은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신에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뻗는다.

---

이글에 서명하시려면, 귀하의 성명과 함께, 소속단체가 있으시면, 그 단체의 이름을 [openletter@ieer.org](mailto:openletter@ieer.org)로 보내주시십시오.

---

DATE & TIME까지 명단 (\*는 서명자의 소속단체만을 의미함)